범어사 대응전 뒤로 광폭 터널이 웬말?!

범어사대책위, 부산시 · 도로공사에 금정산 관통노선 철회 촉구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시가 범어사 경내지를 7.42km를 관통하는 폭50m 4차선 터널을 공사키로하자 부산 범어사가 대책위를 만들고 수행환경 지키기에 나섰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과는 1200m, 내원암 · 청련암과는 불과 800m 거리의 지하로 차량이 지나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족영산 금정산관통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반대 범어사 대책위원회'(간사장 범산, 이하 대책위)는 10월 6일 수송동 모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는 "금정산을 관통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금정산의 수많은 유 · 무형의 문화가치와 문화유적들,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범어사의 수행환경도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예상하고 있는 금정터널 공사로 인한 부작용은 ▷노선 통과 인근 산지 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 진동에 의한 산사태 우려 ▷발파진동, 오염수, 분진, 공사소음 피해 ▷터널 갱구 등의 상시적 대기오염 ▷금샘습지 등 자연습지 파괴 등이다.

대책위는 "금정터널 개통년도 통행량 목표치 5만9000여 대에서 1만2000대가 줄어 4만7000여 대이다. 교통해소 및 경제성도의문인 터널공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 등은 2017년 함양-울산 간고속도로 개통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만덕-센텀지하도시고속화도로까지 개통되면 금정터널의 대폭적인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터널로 관통하지 말고 노선을 금정산 북쪽 외곽으로 우회한다면 IC 신설 등으로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다"라며 "도로공사 등이 대안노선을 두고 터널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 무관 스님(중앙종회의원)은 "민족영산 금정산과 천년고찰 범어사는 국민의 자산이며 조계종의 중심본사이다. 대안이 명확한데도 금정산을 20여 리나 관통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금정산과 범어사를 어쩌자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금정터널 공사로부터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금정터널 반대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를 준비 중이다. 홍보 책자 3000부는 정부기관 및 시민 환경단체 등에 보내져 금정터널 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관 스님이 금정산 관통노선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총무원과 불교환경위원회에도 종단적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범어사 및 부산지역 불자들과 함께 부산시장과 도로공사 사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10월 중 환경법회를 봉행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무관 스님은 "대책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1월 금정터널 공사가 강행된다면 금정산 및 범어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내준 사부대중과 공사현장을 방문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범어사운영위원인 상운 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은 "과거 KTX터널과 고압선 철탑 등이 범어사 인근에 들어서 지금도 수행환경이 상당부분 침해받았다. 금정터널까지 뚫린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토목공사보다는 환경을 보존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혜에 눈뜨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포교 전략만으로 수도권 불교 활성화 불능

"수도권 불교 활성화는 포교 전략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종단 교구제도의 점검과 직할교구 강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갈수록 위축되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해 교구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포교연구실과 불교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수도권불교활성화 TF팀은 10월 5일 '수도권 불교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과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교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거점 사찰 지정과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수도권 불자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교구제도의

교구제도 전반적 정비가 필수
7국 · 7직 및 사무처 직원 확충

문제와 유명무실한 직할교구제도, 그로인한 포교 공동화 현상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현재 교구제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불교 영향력 확대 및 신도증가 방안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할교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직할교구 강화를 위해서도 교구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교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직할교구 위상과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총무원이 직할교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7국의 설립과 7직 스님의 상설화, 담당 사무처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사무기능을 총무원으로부터 독립시켜 각 종교의 각축장인 수도권 내에서의 민첩하게 대응하고, 입체적인 포교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구로 편성해, 인천 지역의 포교, 수행, 교구행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화 전등사를 지역종무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 스님은 "지역거점 사찰의 지정을 통해 교구와 말사의 가교 역할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의 지적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석심 교육원 차장은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이 차장은 "교구본사 소임 강화를 위해 7직 스님들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7직에 대한 임명과 임기 보장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직할교구 사무처는 총무부 관리 체계에서 독립하더라도 직할교구 주지인 총무원장 스님의 직접 통리를 받는 것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 스님은 현실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볼 때, 교구본사의 총무, 교무, 재무의 3직의 겸직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교구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교구정비에는 동의하나 한 번에 실행하기는 어렵다. 서울 중심은 조계사, 북부는 도선사, 강남은 봉은사 주지, 강서는 목동선센터 주지를 교구장 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불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수도권 포교환경조사'와 200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따르면 57.6%가 불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불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윤승용 소장은 "기복 불교나 관념 불교가 아닌 생활불교와 생활법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불교는 전문직 중간층이 두텁지 않다. 이런 현상이 고착되면 수도권 포교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중상층 포교 전력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빛이 되어 다시 돌아오시길

10월 3일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에서는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 스님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정무 스님은 1971~1982년 용주사 주지를 지내면서 퇴락했던 용주사를 재건했다.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원로의원 진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2일 구례 화엄사에서는 종단 주요인사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도천 대종사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도천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의원으로 백장청규의 정신과 수월사상을 평생의 덕목으로 삼아 묵묵히 수행 정진한 큰 스승이었다.

박기범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몽골 내 한국 개신교 선교 위험 수준

양산 영축사 각문 스님 몽골스님 메시지 전해

"몽골에 들어온 한국 개신교인들로 인해 몽골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9월 17일 몽골의 나다크 소재 샤인너몽(sainnomuun) 사원 개원식 법회에 참석한 양산 영축사 주지 각문 스님은 몽골의 대사찰인 강당사원 주지 처이잠즈(choijamts) 스님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스님은 "처이잠즈 스님 등 몽골스님들의 한국 개신교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개신교인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폄하하는 말과 행동으로 무리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문 스님은 "몽골 사원 지원 등을 위해 몽골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방문 때마다 시골 외진 곳까지 교회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은 "처이잠스 스님은 강당사원에


몽골 샤인너몽 사원 개원식 법회 모습

고아원을 세워 포교활동에 전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몽골 불교를 지키기 위해 한국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문 스님은 몽골의 온두라 그룹 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샤인너몽 사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샤인너몽 사원을 도와왔다. 그동안 각문 스님 등 영축사 대중들은 몽골에 셔틀버스와 옷 등 을 기증한 바 있다. 스님은 17일 행사에서 샤인너몽 사원을 지원해 준데 대한 공로로 주지 네르굴(Nergul)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東大 정각원, 대장경 천년기념법회

13일 오후 5시, 누구나 참가 박상국 원장 초청 특강 열려

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해 조계종립 동국대 정각원에서 특별법회가 열린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10월 13일 오후 5시 '고려대장경 천년의 진실'을 주제로 동국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고려대장경 관련 권위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강연한다. (02)2260-3744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역경원장 :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사서실장 : 대산 혜산법종 중앙선원장 : 도일 혜정, 일봉

■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정대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선거대책총무부장: 현덕
총무국장: 천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남산
교육원장: 원광
교육부원장: 광덕
의식원장: 보운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규정국장: 영암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국장: 수산
감찰1국장: 무아
감찰2국장: 인산
감찰3국장: 봉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흥산
강원: 덕산, 원산
복지: 정해, 보현
감찰: 본각, 련성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영산, 지해, 수옥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정산
서울서부종무원장: 종산
서울남부종무원장: 보덕
서울북부종무원장: 선행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동부종무원장: 법성
경기서부종무원장: 덕산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남종무원장: 혜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대구종무원장: 원명
경남종무원장: 도홍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원광
부산중부종무원장: 정오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종무원장: 도명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오
울산종무원장: 혜능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일봉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손정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